“문은 닫혔는데, 예수는 들어오시고”

본문: 요한복음 20:19-25

류호준 목사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바로 그 첫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이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광경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그 곳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 무덤에서 떠나시는 정확한 순간에 여러분이 그 모습을 사진을 담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몇 일 후, 필름현상을 위해 필름을 맡겼던 사진관 주인이 아마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죄송하군요. 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선에 과다 노출이 되었군요!”

빛에 ‘과다노출’이라뇨?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불명예스러운 죄인의 수치를 지닌 채 무덤에 누운 예수의 시신이 찬란한 영광 중에 일어났고, 여러분이 가진 카메라 필름이 그 부활의 영광을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초 성능 필름일 수가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부활절에 대해 겪는 좌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 우리의 개념과 범주로 예수의 부활을 이해하고 포착하려 함으로써 겪게 되는 좌절,
- 부활절을 단순히 우리의 이해와 파악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함으로써 겪는 좌절,
- 부활을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보려는 노력이 경험하게 되는 좌절 말입니다.
- 우리의 생각으로 부활을 포착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좌절 밖에…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부활은 잡으려 해도 그것은 잡히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그러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서 사라졌던 것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활절도 이러합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파악했다고 생각되는 순간, 부활은 어느새 우리의 이해의 그물로부터 빠져나간 후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마치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전’(內戰)과도 같습니다.

- 우리에게는 예수의 부활을 믿기 쉬운 날들이 있습니다.
-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날들도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마치 강원도 동해(東海)의 오월 날씨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언제라도 변하는 날씨입니다. 따스하고 햇빛 비치는 청

명한 날이라 봄이 오는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레 저 멀리 구름이 몰려오더니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신앙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러한 내전(內戰)에 대해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때가 있다면, 다름 아닌 부활의 시즌입니다. 즉 내면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갈등에 대해 깊은 조명이 필요한 때가 부활절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마음(heart)을 깨어 부수는 사건이라면,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생각(理性, mind)을 깨어 부수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 사실을 잘 증거 하듯이 항상 그러해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는 것은 마치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장면들로 뒤죽박죽이 된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화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장면이 화면에 뜨다가, 갑자기 다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관람자의 입장에서 전혀 일관성이 있는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장면들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은 의아해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영화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퍼즐처럼 한 장면 한 장면들이 서로가 짝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중요한 열쇠가 나타납니다. 마치 마스터 키(master key)와 같은 열쇠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의 전체적 윤곽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맞아, 그 남자가 바로 은행을 털라고 그랬던 것이었구나." 혹은, "그래서 그녀가 남편을 독극물로 살해하려고 했던 것이구나!"

이와 비슷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장면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주일의 첫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곳에선가 함께 모였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 한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샬롬 하레켐"("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의아해 할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었을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의아해 할 것입니다: 아니, 상처를 보여주시는데 어찌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제자들이 제 정신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마 우리는 의아해 할 것입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왜 두 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전혀 앞에 장면과 연결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천방지축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부시면서 말씀하기를, "성령을 받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련의 행동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일까?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다음의 장면들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연결이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 문이 닫혔는데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더니,
- 당황하게도, 불쑥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의 찔린 상처를 드러내 보이시는데,
- 그 광경을 보던 제자들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합니다.
- 그러자 예수는 다시금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시고,
-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뿜으면서, "성령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이 부활절입니까 아니면 오순절(성령강림절)이란 말입니까? 무엇이 오늘의 본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열쇠입니까?

열쇠가 들어 있는 장소는 19절의 '닫힌 문'입니다! '닫힌 문 안쪽에' 이야기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문이 닫혀 있는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닫힌 문들을 통과하여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문들은 어떤 문들입니까?

- 예수와 그의 제자들 사이에 있던 문들입니다.
- 예수와 우리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문들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어 오는 동안,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 언제나 닫힌 문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이라 불리는 닫힌 문 말입니다.

첫 번째 부활절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두려움들로 인해 닫힌 문들을 통과하여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 오늘 아침 여기에 와 있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 우리들 중 많은 분들이 날마다 깊은 두려움과 씨름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은 이상한 일들을 합니다.

- 두려움은 우리를 쇠약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신경쇠약증세를 유발합니다.
- 두려움은 우리자신을 다른 사람들에 대항하여 서게 만듭니다. 대인 공포증이란 것이 그런 것입니다.
- 두려움은 우리를 궁지에 몰린 고양이처럼 퍼렇게 질리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질병에 걸릴까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항상 '안전'(安全)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마치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던 제자들처럼, 생존하기 위해 모인 무리들에게 안전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안전은 일시적인 안전이며 도피적인 안전입니다. 참호(塹壕) 속의 안전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제자들은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샬롬' 하셨더라"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예수의 대답이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 다시 말해서, '그분 자신'이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응답이요, 그분의 '현존'(現存, presence)이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노라.
- 이 세상이 너희를 결코 파괴하지 못하리라.
-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였노라.
- 무서워하지 말라!
- 두려워 말라!
-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 나는 '살아있는' 자니라.
- 너희들의 삶의 문들을 닫아 놓을 필요가 없노라!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두려움을 초월하는 삶을 바란다면,

・여러분은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채워달라고 간청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여러분 위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요청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도이신 바울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주님(그리스도)의 영(靈)이 있는 곳에 자유함 —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함 — 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마치 잡초와 같습니다. 두려움은 잡초처럼 비어있는 버려진 공간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공허할 때,
분명히 두려움이 그곳에 싹트고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어있는 그 속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샬롬 하레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구약적 의미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샬롬'이란 단어의 의미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안전, 만족, 행복을 느끼고 있을 때,
・여러분의 토지가 풍작이 되어 많은 곡식을 낼 때,
・다정한 친구들이 많을 때,
・여러분의 이웃들과 좋은 사이로 지낼 때,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샬롬으로 축복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샬롬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조화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평강(平康) 혹은 평화라 부르는 샬롬은 예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나타내시려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분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평화'(샬롬)란 예수 자신입니다.

평화란 '그것'(it)이 아닙니다. 샬롬은 단순한 객체가 아닙니다. 샬롬은 주체입니다. 샬롬은 그 무엇이 아닙니다. 샬롬은 그분(He) 자신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면,

우리는 평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들을 닫아걸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샬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두려움들로 인하여 닫혀져 있는 우리들의 문들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의심과 회의(懷疑)로 인하여 닫혀져 있는 우리들의 문들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의심과 회의란,

- 현학적(衒學的)인 의심이 아닙니다.
- 상아탑에서 말하는 과학적 회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죽은 자는 다시 살수 없다고 주장하는 식의 어줍지 않은 과학적 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의심은 '정직한 의심'(honest doubt)입니다.

- 학문적 토론에서 발생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 매일 삶과의 맨손투쟁에서 발생하는 그런 의심과 회의 말입니다.

아마 세례자 요한이 경험하였던 종류의 의심일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옥에서 풀어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타나시지 않자, 요한은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은 정직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정직한 회의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논리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살아오고, 믿어 왔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가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정직하게 의심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28장 16절로 돌아 가보십시오. 여기서 마태는 예수의 부활 후에 열 한 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하셨던 그 산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그를(부활하신 예수) 보자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였으나, 어떤 이들은 의심하기도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두 눈으로 본 제자들 가운데 어떤 제자들은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처음부터 '닫힌 문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 이성(理性)이 마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하는 제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 그들의 정신적인 유보 장치는 예수를 문밖에 두고 잠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좋은 소식(복음)을 들어보십시오. 요한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문들은 닫아걸어 잠겼는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 문들이 잠겼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수께서 우리들의 두려움들과 우리들의 의심들을 뚫고 들어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한 부활절은,

- 예수께서 크리스천 공동체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마는 부활절 주일에 나타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홀로 카메라를 들고, 다시 말해서 도마는 전형적인 이성적 질문을 가지고 그 어딘가 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시면 이 사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서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그가 제자들의 공동체에 함께 참석하여 일원이 되고서야 비로소 예수는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 그에게 주님을 만나는 큰 영광을 주신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서가 아닙니다.
-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개인에게가 아니라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신자들의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들을 나누고 극복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자들의 교제와 모임의 한 일원입니다.

- 그러므로 나는 나 홀로 기독교 신앙체계를 유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신자들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해야 할 모든 것을 내가 모두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신자들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반드시 믿어야할 모든 것을 내가 한번의 실수나 지침도 없이 다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신자들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고백문서(信條) 안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을 내가 하나도 빼어놓지 않고 다 믿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삶이란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복합적이고, 때로는 힘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을 다 믿을 수 있는 힘을 유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우리는 마치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도마

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난센스라고 젖혀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제발 내 말을 믿어주십시오.
-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어야만 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 그것은 마치 무거운 짐에 눌려 쓰러지는 나귀를 채찍으로 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고요?

- 힘을 다시 얻고, 균형을 다시 잡고, 전체적 전망을 다시 가질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도마를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활을 믿었던 자들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가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강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 신자들의 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 그가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의 잠겨진 문들을 관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나를 포함하여 아무도 이 자리에 있어야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활절이 그렇게 시작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 한 주일의 첫날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제자들) 우리는 우리들의 두려움과 의심의 문들을 꼭 닫아 걸은 채로 여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샬롬 하레켐"(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이라고.

기도
살아 계신 그리스도여!
우리의 닫힌 문들을 뚫고 들어오소서.
우리의 두려움들을 뚫고 들어오소서.
우리의 의심들을 뚫고 들어오소서.
평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가슴에 기쁨으로 채워 벅차게 하소서. 아멘.

March 31, 2002